

研究論文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

박 환*

I. 서언	IV. 주요 참여자의 분석
II. 송산면 3·1운동의 배경	V. 일제의 대응과 탄압
III. 송산면의 3·1 운동 전개	VI. 결어

I. 서언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조선이 강점된 후 한민족의 민족적 투쟁으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이 3·1운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3·1 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만주, 러시아, 미주 등 국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화성지역은 3·1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일 것이다. 운동도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암리 등의 일제의 만행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 또한 그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화성시(당시는 수원군)의 3·1운동에 주목하여 향남면 제암리, 우정면 장안면 등 다수 지역의 운동상황 및 일제의 학살 전모가 구체적으로 많이 밝혀지게 되었다.¹⁾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화성지역 3·1운동의

* 수원대학교 교수 역사학

1)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홍석창, 『수원지방 3·1 운동사』, 왕도출판사(1981).

전체상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나치게 만세운동과 학살측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운동의 발발 배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살피지지 못하였으며, 그 영향과 다른 지역과의 상관관계 또한 아직까지 심도 있게 조망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정면, 장안면, 향남면 제암리 등이 부각된 나머지 화성시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시발점 역할을 하였던 송산면에 대하여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송산면지역의 만세운동의 경우 3월말 1천 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어난 대대적인 만세시위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본 순사부장을 살해함으로써 평화적인 만세운동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는 단계의 운동으로서도 특별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고에서 특별히 송산면 지역의 3·1 운동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송산면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민족운동의 전통을 3·1운동의 배경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알아보고 또한 주요구성원도 분석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학력, 연령, 재산정도, 생활 상태, 종교 등을 밝혀볼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탄압에 대하여도 알아보고, 끝으로 송산면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송산면 3·1운동의 배경

1. 사회경제적 상황

송산면은 1914년 일제가 府·郡·面 통합 폐합시 松山 細串 水山 등을 합하여 수원군 송산면으로 개칭되었다. 남양반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15 개리 중에서 10 개 리가 바다에 접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토도 풍부하여 농사에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출판사 (1983).

이정은,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199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특집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1997).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2) 1922년 12월말일 일본측 조사(별첨 <표 1> 참조)에 의하면3), 송산면의 경우 수원군내 총 206,250 町步의 일모작 논 가운데 5.5 %인 11,214 정보의 논이 있었다. 이것은 반월면(14,678), 안용면(14,159), 태장면(13,474), 우정면(13,041), 향남면(11,135) 다음 순위이다. 논과 밭을 합한 경우에는 전체 수원군내 344,301 정보 가운데 송산면의 경우 19,029 정보로서 5.5 % 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 역시 반월면(25,115), 태장면(22,752), 우정면(21,488), 안용면(21,232)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송산면은 바다에 접해 있는 지역이지만 많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송산면은 龍浦里, 新川里, 古馬里, 古井里, 六一里 등지에 염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주변인 마도면 靑園里, 巨馬里, 雙松里(巨亭里), 海門里 물미폭 등지에도 염전들이 있었다.4)

또한 송산면의 경우 별첨<표 2>에서5) 보는 바와 같이 1922년의 경우 수원군내 전체 농가수 22,581호 가운데 6.3%인 1,443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군내에서 가장 많은 호가 전업 및 겸업으로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농가 1,443호 가운데 지주(갑)이 10호, 지주(을)이 37호, 자작호가 136호, 자작 겸 소작이 703호, 소작이 557호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1,443호 가운데 73.1%인 1,260호가 자작 겸 소작 또는 소작농인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1919년 4월 이 지역의 이재민 상황을 시찰한 경기도 장관은 4월 10일 밤 서울에 돌아와 “송산면 마도면 방면은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고기잡이를 하는 백성인데 반은 농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땅을 농사하는 자는 거의 없고 모두 소작인뿐 임으로 구차한 백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6)

송산면 지역은 마산포 항구를 통하여 인천 등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사강리의 경우 포목상인 鄭君弼(鄭元鎔)이 수원군으로 물품을 구입하러 가는 경우7) 및 車敬炫(車萬澤)이 수원 남문으로 가물치를 구입하러 가는 등8) 수원

2)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화성군 (1990), 349 쪽

3) 酒井政之助, 『水原』(1923), 24-25 쪽

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 운동편 12』 22 (1995) 참조

5) 위의 책, pp. 26-27.

6) 『매일신보』 1919년 4월 23일자 <수원이재민의 참상>

7) 22권 319쪽

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수원 화성지역은 서울의 관문이어서 예로부터 군사주둔지와 총융청 둔전 등 군용지와 왕실토지, 철도부설지 등이 많이 있었다⁹⁾ 그런데 1910년 일제는 조선을 일제의 값싼 쌀 공급지이자 공업원료 수탈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토지조사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지, 역둔토 등 전 농토의 40%나 되는 토지가 조선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조선총독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식민지사업회사에 토지를 불하하고 일본인을 이주시켜 지주로 만들었다. 수원에도 동양척식회사의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총독부 소유의 땅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조사를 통해 지세수입이 2배, 과세지가 52%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는 반면 조선인 자작농, 자소작농은 토지를 잃고 소작인으로 전락하였다.¹⁰⁾ 송산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송산면의 경우 현재 사강 시장 앞 벌판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들이 다수 진출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지역은 송산면지역에서 가장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¹¹⁾

또한 송산면지역의 토지 소유 형태는 1920년 4월 당시 일제에 의하여 탄압받았던 罹災농가 204호를 소유지 면적 순으로 배열한 <표 1>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¹²⁾ 이들 중 가장 소유지가 많은 농가는 사강리 옆에 있는 봉가리 안모의 17,945평이었다. 송산면에서는 6천평(30 두락)이상이 10호, 3천평(15두락)이상이 18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의 영세농이었다.

8) 22권 113쪽

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1995), 635쪽

10) 정병욱, 「일제의 식민정책과 경기도」,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316쪽

11) 洪士億(1908년생, 송산면 쌍정 1리 거주, 일제당시 300두락의 지주)과 2001년 2월 26일 자택에서 가진 면담에서 청취.

12) 위와 같음.

<표 1> 송산면 罹災농가 204호의 소유지 면적별 일람표

동	평	2000평 미만	1500평 미만	1200평 미만	6000평 미만	3,000평 미만	1,500평 미만	900평 미만	무소유
봉가		1		3	4	5	6	5	22
삼존		1		2	3	2	3	4	24
사강				3	10	10	3	12	44
육일					1	3	4	4	18
해문							1	1	5
계		2	0	8	18	20	17	26	113

*1 마지기(두락)은 150-300 평임

*「수원군 송산면 지방에 있어서의 소요사건 복명서」, 1919년 4월 25일 참조,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321쪽 재인용.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3호에 이르는 50%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후일 이 지역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 동학 및 해안 의병의 영향

동학농민전쟁은 1894년 1월~3월 고부민란 단계, 3월~5월 제1차 동학농민전쟁 단계, 5월~9월 동학농민전쟁의 집강소 단계, 9월~12월 남·북접이 연합한 제2차 동학농민전쟁의 단계등 4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지역에서는 1894년 6월 28일 제1차 동학농민전쟁 발발 직후에 남양에서 최초로 농민전쟁이 발발하였다.¹³⁾ 이러한 점으로 보아 남양일대는 경기도에서 일찍부터 동학이 전파 되어 성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남양에서는 천도교가 번창하였던 것 같다. 1909년 8월 남양교구가 전국에서 誠米납부성적이 우수하여 1 등에 선정된 점은¹⁴⁾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송산면 인근지역인 남양지역에서는 1894년 6월 고을원의 지세수탈 등에

13) 최홍규, 「경기지역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활동」, 『조선시대지방사연구』, 일조각 (2001), 155~156쪽

14) 『천도교회월보』8호(1911년 3월), 「중앙총부회보」48쪽

대항하여 농민항쟁이 발생하였다. 또한 1895년 명성황후 시해이후 의병항쟁이 일어나자 1896년 이천에 있는 守倡義所의 金河洛 의병장의 격문에 감동되어 그곳으로 옮겨가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1907년 8월 남양에서 군대가 해산되자 동년 9월 10일 신경춘은 부하 10 여명을 이끌고 남양군 연안 화령도와 대부도에서 활동하였다.¹⁵⁾

송산면은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바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의병활동은 이들 주민들의 민족의식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지역에서는 1908년 3월부터 “수적”의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들 의병들은 인천 앞 바다인 영종도와 남양만 앞 바다에 있는 대부도, 영흥도를 근거지로 섬들을 옮겨 다니거나 때로는 남양군 해안에 상륙하여 수원방면으로 진출하여 토벌대와 항쟁하기도 하였다.

의병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남양군과 수원군 남부 해안에 출몰하는 수적들이 대부도 등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인천 세관 소속의 작은 증기선을 빌려 대부도와 노홍도, 풍도를 중심으로 의병을 정찰하고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토벌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에도 불구하고 5월에 들어서도 수적이 활동이 그치지 않자 일제는 6월 5일 일제는 경찰 8 명을 파견하여 섬들을 수색하기도 하였다.¹⁶⁾

이에 1908년 8월 27일 남양지방 금융조합이사 色川元市는 탁지부대신 임선준에게 보낸 보고에 “이곳 지방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극히 악질로 배일사상이 가장 격렬한 곳이며 해안으로 남양반도 전면에는 대부도를 주로 하고 작은 여러 개 섬이 있어 폭도가 잠복하거나 총기 등을 몰래 옮기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다. 해안에는 아무 시설도 없고 일본인 순사(남양군 전체에 3명)가 단속하므로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일본인에 대하여는 이를 갈며 응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¹⁷⁾ 1908년 9월 16일자로 탁지부 대신에게 <관유창고 이용에 관한 건>으로 보낸 공문에서는 “이곳은 인심이 나쁘고 배일사상이 가장 격렬한 곳이다.”¹⁸⁾라고 하여 이 지역

15) 이계재, 「남양군의 사회와 교육」, 『화성의 얼』, 화성문화원 (1998), 18~27쪽.

1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 (1995), 168~171쪽.

17) 『남양관계서류』규장각 도서번호 22048(이계재 논문, 83~84쪽에서 재인용)

18) 위의 논문, 84 쪽

주민들의 항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III. 송산면의 3·1운동 전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소식은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도지역에 즉시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수원에서도 3월 1일 만세운동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하여 팔달산 서장대와 창룡문 안 연무대에 수백 명씩 모여 만세를 부르며 종로를 통과하여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3월 23일 수원역 부근의 서호에서 700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수원역 앞에서 일경과 헌병대 및 소방대의 제지를 받고 해산했다. 아울러 인천 등지에서도 3월 7일부터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¹⁹⁾

수원지역의 만세운동 소식은 그곳을 오가는 지역민들을 통하여 입으로 입으로 전해졌을 것임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 등 인근지역의 만세소식은 신문을 통하여도 전해졌다.

송산면의 경우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여하고 돌아온 洪孝善에 의하여 만세소식이 전해진 것 같다. 만세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가운데 한사람인 王光演(王國臣)은 그의 신문 조서에서,

홍효선과 洪屍玉이 선동했으므로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홍효선은 국장을 배관하고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는 그때 서울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며, 또 무엇인지 모르나 글을 쓴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마을 어디엔가 붙였다는 것이다.

음력 2월 25일에 마을 사람이 다수 모여 있을 때 홍효선과 홍면옥이 서울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온 글에도 만세를 부르라고 적혀 있으니²⁰⁾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국가보훈처 (1983), 149~150 쪽

20) 22권, 84 쪽

라고 있듯이 홍효선이 서울의 만세소식과 아울러 독립선언서를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효선의 경우 만세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으나 일제의 체포를 피하였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살필 수 없다. 한편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한 송산면 사강리 지역에 살고 있는 홍면옥(일명 홍면)²¹⁾은 매일신보를 통하여 만세소식을 접하였다.²²⁾ 그는 3월 11일 신문을 통하여²³⁾ 만세소식에 접한 후 조선은 원래 독립국이었으므로 당연히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²⁴⁾ 홍면옥은 당시 35세의 장년으로 활발한 활동가였던 것 같다. 그는 일찍이 1914년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을 산 적이 있었으며, 1917년에는 인천지청에서 도박죄로 태형 30을 받은 적이 있었다²⁵⁾ 그가 어떠한 이유로 도박 및 횡령죄에 처하여졌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식민지배에서 저항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서당에서 한문을 2~3년 공부한 인물이었으므로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지식인이었다.²⁶⁾ 한편 홍면옥의 동생 洪垞玉²⁷⁾ 역시 당시 신문을 보고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²⁸⁾

-
- 21) 홍면은 1919년 체포된 후 1920년 징역 15년을 언도 받고 12년에 처해진 후 10년을 살다 출옥하였다. 해방 전에는 송산면 육일리에서 한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것 같다. 그에게서 홍진유(당시 송산보통학교 5,6학년생, 예종구의 5남 예문택과 동기)는 홍면으로부터 애국가를 배웠다고 자랑한 바 있다고 한다. 홍면은 해방후 송산면 치안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예종구의 5남 예문택과 2002년 10월 14일 마산2리 185번지 자택에서 가진 대담에서 청취). 또한 해방이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 김시중 면담,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01, 77~78쪽) 그는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하다 월북하여 1949년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들 홍진후, 손자 홍광유 증언)
- 22) 당시 홍준옥, 문상익도 신문을 보고 만세소식을 알고 있었으며,(22권, p. 313, 315) 차경현도 알고 있었다.(22권, 319쪽) 또한 포목상인 정군필도 상품을 사러 서울에 갔다가 만세소식 및 검거 상황을 알고 있었다(22권, 169쪽).
- 23) 22권, 30쪽
- 24) 22권, 78쪽
- 2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1권 3.1운동 11(이하 21 권으로 약함) 1996, 217쪽 태형은 1912년 3월 제령 13호로 발효된 <조선태형령>에 기초한 것이다 태형은 위낙 잔혹한 형벌이라 태형을 받은 사람은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된다고 한다(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행지, 1986, 50~51쪽)
- 26) 22권, 77쪽
- 27) 홍준옥은 해방 이전 마산포 항공감시초 감독, 경방대장(현재 소방대장) 등을 했다는 소문이 송산면에 전해지고 있다.

만세운동은 홍효선, 홍면옥, 李奎善²⁹⁾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 같다. 홍면옥이 그의 신문조서에서,

주모자는 나와 동면 중송리 거주 이규선(당 30세 가랑)과 사강리 거주 홍효선 3명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홍효선은 중심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홍면옥이 일제측의 신문에서 “금년 음력 2월 초순경에 서울의 매일 신보를 읽고 조선 각지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또 그 무렵에 송산면 사무소 게시판에 이러한 좋은 기회에 만세를 부르는 것은 독립을 구하는 것으로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조선인민이다. 만세를 부르지 않는 마을에는 방화한다는 의미의 광고가 익명으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³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의 국장에 참여한 홍효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홍효선³¹⁾, 홍면옥, 이규선 등은 주변의 가까운 동지들을 통하여 3월 26일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고자 추진하였던 것 같다. 이날은 구장집에 모여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洪允日 등 다른 동지들을 통하여 비밀리에 3월 26일에 만세운동이 있을 것임을 알리고 꼭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洪說厚의 신문 조서에,

나는 3월 23일 오후 1시경 송산면 육일리의 형 집에 가는 도중에 사강리의 홍

28) 21권, 275 쪽

29) 송산면 중송리 거주(현재 중송1리 솔미), 당 30세 가랑, 21권 217쪽 참조 이규선(1885-1941)은 만세운동 후 일제의 눈을 피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1923년부터 1928년까지 임시정부의 밀령을 받고, 3차에 걸쳐 입국하여 군자금 모금에 힘쓰다가, 1928년 8월 황해도 沙里院에서 체포되어 10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1931년 1월 다시 대대적인 군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으며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1년 9월 15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독립유공자공훈록』 이규선 조)

30) 22권, 77 쪽

31) 사강 만세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홍효선에 대한 자료는 제한되어 있다. 제적등본에 따르면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544지 거주이다. 본관은 남양이며, 아버지는 홍대연, 어머니는 조씨이다. 생몰연대는 1879-1932로 되어 있으나 1919년 체포후 고문에 의하여 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장남인 洪承漢도 역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윤일이 말하기를 오는 26일에 사강리 시장에 모여 한국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너를 죽이든가 집을 태워버리겠다고 말하였으므로 26일 오전 11 시 경 시장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³²⁾

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만세운동은 미리 준비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3월 26일(음력 2월 25일) 오전 9시경 사강리 구장 洪明謙(洪明先)의 집으로 戶稅를 납부하려고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되었다³³⁾ 이때 홍효선은 주민들에게 다른 마을에서도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우리도 만세를 부르자고 외쳤다.³⁴⁾ 그러자 일동이 이에 동의하였다.³⁵⁾ 이때 홍면옥은 여러 사람들에게 대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일경에게 붙잡혔을 때에는 누가 주모자라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는 과거 경찰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⁶⁾

그 후 홍면옥, 홍효선 등의 주도로 주민들은 송산면사무소³⁷⁾로 향하였다 그곳은 바로 일본의 최하단 말단 행정기구였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오후 5시경 사강리 송산면 사무소 부근에 구한국국기를 게양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때 왕광연(왕국신), 洪明善, 洪奉根, 洪福龍, 홍준옥, 金教昌, 金度貞, 金容俊, 車敬炫(車萬澤), 秦順益, 李舜日(李順一), 李潤植(李惜春), 崔春甫, 安順元, 吳光得(吳景源), 정군필, 金炳駿(金相鉉, 金秉俊), 金成實, 林八龍(林龍甫) 등과 150여명의³⁸⁾ 군중이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³⁹⁾ 이에 놀라 순사보 2명이 와서 주모자가 누구냐고 다구치자 홍효선은 자신이 주모자라고 밝히는 대담성을 보여주고 있다.⁴⁰⁾ 만세시위가 끝나자 일본 경찰이 중심인물인 홍면옥과 홍효선 등을 체포하려하

32) 21권, 259쪽

33) 당시 사강리는 120호정도였다(22권, 265쪽)

34) 이러한 주장은 자못 만세운동이 피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재판 및 신문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언급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35) 22권, 77~78쪽

36) 22권, 31쪽

37) 현재 위치는 송산초등학교 우측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이다.

38) 22권, 78~79쪽

3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국가보훈처 (1983), 389쪽.

40) 22권, 78~79쪽

자 그들은 서신 방향 마을 앞 육일리 뒷산인 宮坪山(현재 구봉산)에 가서 숨어 있었다.41) 사강리경찰관주재소42)의 경우 숫적 열세로 일단 주민들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하였다.43)

사강리경찰관주재소에서는 3월 26일의 만세사건을 남양경찰관 주재소 순사 竹內階吉에게 보고하였고, 그는 즉시 수원경찰서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월 27일 오전 8시 순사보 金學應, 趙鍾桓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사강리로 왔다.44) 이때 그들은 송산면 사강리 서쪽 육일리 방면에서 만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정오경 면사무소 뒤의 언덕45)에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46)

이에 사강 주재소 근무 순사보 張龍南과 모두 4명이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가자 주민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전부 해산하였다. 이에 일경도 우선 사강주재소로 철수하였는데 수원경찰서에서 순사부장 野口廣三과 순사보 鄭仁玉이 응원차 왔다.47)

3월 28일은 사강 장날이라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장터로 모이는 날이다. 이에 주재소에서는 아침부터 주민들에게 점포를 닫도록 지시하였다.4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전 10시경 사강장터에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49) 그리고 오전 11시경 홍면옥이 중심이 되어 그의 집 앞뜰에서 홍면옥, 홍효섭, 김창준, 왕광연50), 홍태준, 홍문선 등이 만세를 불렀다.51) 그리고 홍면옥은 이규선과

41) 22권, 31 쪽

42) 사강주재소는 1917년 2월 8일에 설치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1917년 2월 8일자)

43) 21권, 265 쪽

44) 21권, 265 쪽

45) 현재 송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송산초등학교 구내에는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서 있으며 기념비 옆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소나무 한그루가 옛날의 일들을 증언해주고 있다.

46) 『독립운동사자료집』 5, 389 쪽

47) 21권, 265 쪽

48) 22권, 97 쪽, 162 쪽, 171 쪽

49) 22권, 266 쪽

50) 왕광연은 홍면옥의 고모부이다. 왕광연의 부인은 홍선희로, 홍명옥의 부친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홍면옥은 그의 고모와 가까워 자주 들렀으며 해방이후에 북쪽으로 갈 때에도 짚신을 갖고 밭집을 지고 저녁에 들러 인사를 하고 새벽에 떠나갔다고 한다(왕광연의 며느리 이남순의 증언)

51) 21권, 251 쪽

홍효선 등과 함께 오늘이 사강리의 장날이므로 오후 2~3시에 동네 주민들과 사강 시장에 오는 인근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만세를 부르라고 하며 면 사무소 뒷 언덕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⁵²⁾ 이때 송산면 면사무소 앞, 뒷 언덕 및 그 부근 그리고 사강 주재소⁵³⁾에서 洪文善, 洪南厚, 洪聖漢, 洪寬厚, 文相翊, 李敬集(李正執), 朴春興, 閔龍震, 全道善 등 및 다른 1천 여 명의 군중이 국권회복을 위하여 태극기를 치켜들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⁵⁴⁾ 태극기는 약 2척 5촌에서 3척 가량의 白布에 염색을 하였다.⁵⁵⁾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일본 순사들은 해산을 명령하는 한편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면옥 등은 계속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⁵⁶⁾ 주민들에게 “조선독립은 결코 총독부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요. 세계대세와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조선민족된 의무로 만세를 부르는 것이다”라고 외치며 만세운동을 독려했다.⁵⁷⁾

이에 노구찌 순사는 홍면옥과 이규선, 芮鍾九(具)⁵⁸⁾ 등 3명을 잡아 앓혀두었다.⁵⁹⁾ 이때 홍면옥이 갑자기 일어나 만세를 불렀으므로 오후 3시경 일본순사 노구

52) 21권, 218-219쪽, 231쪽.

53) 사강주재소는 과거 송산면사무소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사강4리 결로당 앞 공터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2002년 11월 23일에 이남순(1919년생, 왕광연의 큰 자부, 왕광연의 외아들 王和植의 부인)과 송산면 사강 1리 605번지 자택에서 가진 대담에서 청취)

54) 22권, 257쪽

55) 21권, 218쪽

56) 21권, 218쪽

57) 동아일보 1920년 5월 15일자 22권 312쪽

58) 예종구(1897-1950)는 마산리에 거주하고 있던 인물이다(21 권 p.220). 제적등본에는 芮鍾具로 나와 있다. 고포 2리 출신인 예종구는 마산리 176번지로 이주하였다. 부호집에서 태어난 그는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한학에 열중한 학자였다.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는 마산리 거주 안성열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풍도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처가인 대부도로 옮겨 숨어 있었다. 그 후 인천으로 피신하여 체포 투옥되었다가 논 3,000평을 팔아 바치고 석방되었다고 한다. 인천에서 영화소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간이학교를 만들고 교육에 종사하였다. 그 후 사강리로 나가 여관업, 대서방, 양약방 등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후 홍면옥과 함께 송산면 치안대에서 활동하다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다.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자 혐의로 수원경찰서에 수차례 불러 다녔으며, 1950년 6.25 발발 후 수원 광고산에서 처형되었다. 예종구의 아들 예문택(1928년생, 마산2리 185번지 거주)과 2002년 10월 14일에 가진 면담에서 청취. 일제는 1919년 4월 예종구가 살던 마산리 176번지를 불살랐다고 하며 현재 그곳은 밭터로 변해 있다. 예종구의 묘소는 마산 2리 예문택의 집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찌가 총을 발포하여 주민들을 해산하려고 하였으나 홍면옥이 등(어깨)에 맞고 피를 흘렸다.⁶⁰⁾ 이에 홍면옥은 동생 홍준옥에게 업혀서 송산면 사무소 속직실에 앉아⁶¹⁾ 동생으로부터 응급 조치를 받았다.⁶²⁾ 그때 홍면옥의 부인이 아버지인 金明濟⁶³⁾에게 연락하였고 즉시 그는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순사가 말리자 나를 죽이라며 저항하였다.⁶⁴⁾ 홍면옥은 송산면 면서기로 있던 동생 홍준옥, 그리고 홍효선, 예종구 등과 함께⁶⁵⁾ 송산면 사무소 안팎에 있던 주민들에게 일본순사를 죽이라고 호소하였다.⁶⁶⁾ 한편 이때 얼마 안 있어 서신면 방면에서 대한독립이라고 쓴 깃발을⁶⁷⁾, 송산면 中松里 방면에서도 태극기를 내세우고 만세를 고창하며 몰려왔

59) 『독립운동사자료집』 5, 389 쪽

60) 『독립운동사자료집』 5, 388쪽. 홍면옥이 총을 맞은 장소는 사강리 면사무소 뒷 도로이다(21권, 219쪽).

61) 21권, 218 쪽

62) 21권, 227 쪽

63) 홍면옥은 김명제의 첫째 사위이다(21권, 219 쪽)

64) 21권, 219 쪽

65) 21권, 220 쪽

66) 21권, 218 쪽

67) 서신면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자료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홍면옥의 신문시에 그는 서신면, 송산면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고(21권, 217쪽) 하고 있고 또한 김명제(21권, 220쪽) 그리고 일제측도(21권, 226쪽, 229쪽) 서신면민들의 참여를 기정 사실 화하고 있다. 또한 송산면 상안 1리에 주민들이 세운 만세운동 기념비(1979년 3월 28일자, 이종수 글, 노경호 씀)가 남아 있어 그 일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할 듯하다. 3.1운동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당시 상안리에 거주하던 이원행씨가 주동이 되어 일제에 항거한 서신면은 노도와 같이 들고 일어섰다. 3월 26일부터 주민이 합세한 이 운동은 3월 28일 새벽 굴고개를 단숨에 넘어 송산면민과 합세, 마침 사강 장날이라 수많은 군중이 이에 호응, 거센 독립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케 했다.

주로 민중의 선두에 나섰던 이원행씨와 전곡리 홍성휴씨 그리고 이제항씨와 송교리 홍대규씨는 더욱 울분에 싸여 일제의 만행에 소리쳐 항거했다. 그 후 일제 왜경과 헌병은 마을을 습격 불을 지리며 전곡리 홍대우지사를 학살하는 등 만행을 자행했다. 이원행씨는 그 후 해외로 망명, 블라디보스톡, 하얼빈 상하이 등지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으로 이국 타향에서 가진 고초 끝에 수년 후 귀국하여 향리에 돌아 오신 뒤 국권회복은 오직 젊은 청소년들에게 애국정신 고취와 민족교육에 있음을 느끼시고 서신학습강습소에서 후배 양성을 위한 몽학에 전념하시다 조국광복 전에 53세로 돌아가셨다”

상안 1리 노인들 특히 이용안(1917년생 이원행의 조카 상안 1리 거주)의 증언에 따르면 이원행은 양성 이씨로 부농이었고 보성전문 학생이었다고 한다 1984년에 만들어진 『양성이씨 대동보

다.68)

사태가 견잡을 수 없게 되자 노구찌 부장은 자전거를 타고 남양 방면을 향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일경은 일단 남양으로 철수하여 수원경찰서에 응원을 청함과 동시에 남양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소집하여 이를 진압하려는 정책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강리 주재소에 들리어 노구찌부장이 자전거를 타고 남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군중들은 빨간모자를 쓴 자를 죽이라고 절규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투석하였다. 노구찌부장과 일경은 함께 발포하며 길을 열어 남양으로 돌아가려는 도중 다수의 주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노구찌순사가 자전거로부터 떨어져 도로변에 쓰러졌다.69) 이때 송산면과 서신면의 주민 수백명이 다가가서 돌과 곤봉으로 그를 처단하였다.70) 3시 30분 경이었다.71)

노구찌 순사를 처단할 당시 주민들은 200~300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홍준옥, 문상익, 林八龍, 姜業同, 王國臣, 朴榮順, 金致然, 李周先, 예종구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72)

한편 부상을 당한 홍면옥은 장인 김명제에게 닭을 잡아달라고 하여 닭의 고기를 상처에 약으로 발랐다. 그리고 장인, 임팔용, 홍준옥이 끄는 인력거를 타고 수원의원으로 오는 도중 수원군 麻道面 斗谷里에서 순사를 만나, 다시 사강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73)

한편 일경은 남양에 돌아온 후 그곳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모아 재차 송산면으로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돌아왔다. 이때는 이미 만세운동은 해산된 뒤였다. 74)

권3』에 따르면 李源行은 1889~1939년이며 아버지는 李鉉鎭, 형은 李源永이다. 또한 홍성휴는 남양홍씨 대호군파이며, 이재항은 전부이씨이고, 홍대규는 당성 홍씨라고 한다.

68) 21권, 265 쪽

69) 21권, 265 쪽 순사부장 사망장소는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동단 사강경찰관주재소로부터 동방 약 63간(인가로부터 23간) 남양에 이르는 도로변 밭강업동 소유업(21 권, 211 쪽), 사강시장에서 남양방면으로 약 2정거리라고 한다(21 권 262 쪽)

70) 21권, 220쪽, 222쪽. 일본순사가 처단된 곳은 현재 사강리 수협 근처라고 한다(송산면 전 면장 홍사민, 왕광연의 며느리 이남순과의 대담에서 청취)

71) 21권, 228 쪽

72) 21권, 220 쪽

73) 21권, 218 쪽, 221 쪽, 224 쪽, 227 쪽

74) 21권, 265 쪽

IV. 주요 참여자의 분석

1919년 3월 26일부터 동 월 28일까지 송산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의 참여인원은 기록에 따라 1천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수의 한인들이 일제에 의하여 가옥이 파손되었고 살상 및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전체 명단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운동의 주요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⁷⁵⁾ 이들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생활정도, 재산정도, 주소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강 만세운동은 연령적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중심인물은 홍면옥, 홍준옥 등 30대가 중심이었다.⁷⁶⁾ 특히 홍면옥, ⁷⁷⁾ 홍효선⁷⁸⁾ 그리고 홍면옥의 장인인 김명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면서기인 홍면옥의 동생 홍준옥과 문상의 역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30대는 홍면옥, 임팔용, 홍준옥, 차경현, 김교창, 김도정, 홍문선, 김용준, 안순원, 정군필, 이경집 등이었다. 10대는 홍면선, 홍복룡, 20대는 문상익, 홍승한(홍효선의 장남), 박춘흥, 황철성, 홍관후, 전도선 등이다. 40대는 왕광연, 홍남후, 민용운, 오광득, 이윤식 등이다. 50대는 김명제, 김성실, 최춘보, 홍태근 등이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이 지역의 대성인 남양홍씨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홍면옥과 홍준옥 형제, 홍효선, 홍문선, 홍면선, 홍복룡, 홍승한, 홍관후와 홍남후형제⁷⁹⁾ 등이 그러하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홍면옥 및 홍남후 형

75) 일본이 수괴로서 파악한 인물 중 홍효선, 李泰順, 李石春, 芮鍾九 등 및 체포하고자 했던 趙仁煥, 金世豐, 金尙然, 姜京童, 李石春, 洪泰成, 洪命天, 姜億童, 王善敬, 嚴周背, 秦陽浩, 姜君兼, 黃鍾雲, 金贊西, 王敬叔 등 여러명은 체포되지 않았다(21 권 264~265 쪽).

76) 체포되지 않은 이규선, 예종구 등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77) 제적 등본에 따르면 홍면옥의 아버지는 洪泰元이고, 홍준옥의 아버지는 洪泰貞이다. 홍면옥의 아들 홍진후에 따르면 홍준옥은 양자를 갔다고 한다.

78) 홍효선은 1919년 3월 28일 체포되어 수원수비대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여 홍효선의 3남 洪承天<1913년생>이 1973년 5월 증언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朴永鎬가 1977년 2월에 증언) 그러나 홍효선의 아들 홍성환의 당시 증언에 따르면 부친은 부천군 육부면에 피신하였다가 4월 5일 집에 들러 1박하고 서신면 장외리 정태환의 집으로 간다고 하였다 한다(21 권, 249쪽). 앞으로 좀더 검토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79) 만세운동에 참여한 홍남후, 홍열후, 홍관후 3형제는 모두 홍근의 아들이다 『남양홍씨세보』 권간,

<표 2> 송산면 만세운동 주요 인물 일람표

이름	생몰연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생활정도	재산	주소	징역
홍면옥·홍면	1884-	35	농업	한문2~3년	없음	곤란	3~40	사강	12년
홍효선	1879-	40	농업		없음	보통		사강	
왕광연·왕국신	1872~1951	47	농업	한글조금해독	없음	극빈	40	사강	12년
김명제	1862~1926	57	농업	무학	기독교	곤란	120	사강	10년
임팔용·임용포	1887-	32	농업	무학	없음	곤란	70	사강	8년
홍준옥	1888~1945	31	면서기	남양사립학교	없음	곤란	2,500	사강	12년
문상익	1892~1960	27	면서기	남양보흥학교	없음	약간곤란	1,100	사강	12년
홍명선	1900~1974	19	농업	한문2년	없음	곤란		사강	8년
차경현·차만택	1882	37	음식업	한문2년	없음	풍족	200	사강	8년
김교창	1889~1959	31	이발업	한문4~5년	없음	극빈		사강	8년
홍남후	1871~1927	47	농업	한문6~7년	없음	유복	3,900	삼존	8년
김도정	1889~1971	31	농업	무학, 한문조금 해독	없음	보통		사강	6개월
김성실	1869-	50	농업	문맹	없음	곤란		사강	6개월
최춘보	1866	53	농업, 음식업	문맹	없음	곤란	250	사강	6년
홍승한·홍성택	1894-?	25	농업	한문1년	없음	보통	100	사강	6개월
박춘흥	1899-?	21	농업	문맹	없음	곤란	130	사강	7년
홍문선	1889-	30	농업	한문1달	없음	극빈	160	사강	7년
민용운	1874~1925	45	농업	문맹	없음	극빈	35	사강	7년
이경집·이정집	1883-	36	농업	문맹	없음	풍족	1,190	사강	6개월
홍태근	1860-	59	농업	문맹	없음	풍족	2,500	사강	6개월
황철성	1893-	26	고기전	언문해독	없음	곤란	없음	사강	7년
홍복룡	1901-	18	농업	문맹	없음			사강	6개월
홍관후·홍재범	1890~1971	29	농업	무학(한문)	없음	풍족	2,500	삼존	7년
김용준	1881~1936	35	농업	문맹	없음	극빈	140	사강	7년
전도선	1891-	28	잡화상	문맹	없음	극빈	70	사강	7년
오광득·오경운	1879-	40	농업	한문 1년	없음	곤란	160	사강	6년
이윤식·이석춘	1879~1955	40	농·식당	한문 1년	없음	곤란	250	사강	6년
안순원	1887~1950	32	농업	문맹	없음			사강	6년
정군필·정원용	1883~1973	36	포목상	국문해독	없음	보통	1,300	사강	7년

* 연령은 1919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재산 단위는 円입

* 본 표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1-22』 및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공훈록』 재판기록 제적등본 홍면옥 홍효선, 오광득, 이경집, 김성실, 후손과의 면담 홍면옥 왕광연, 『남양홍씨세보(1991)』, 홍남후 홍관후 왕광연의 묘비석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체는 사강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남양홍씨 참의공파였다.⁸⁰⁾

둘째, 직업을 보면 홍면옥과 왕광연을 제외하곤 대체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홍면옥의 경우 조부인 洪楠과 부친인 洪泰元이 1828년과 1879년 각각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여 양반 행세를 하였다고 한다.⁸¹⁾ 또한 왕광연 역시 죽을 때까지 직접 농사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한다.⁸²⁾ 그 외에 일부가 면서기(홍준옥, 문상익), 음식업(차경현), 이발업(김교창), 고기전(황철성), 잡화상(전도산), 포목상(정근필) 등에 종사하고 있다. 문상익은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우고 1911년 8월부터 경성토지조사국의 기사가 되고, 1916년 11월까지 동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1917년 7월에 송산면 서기로 임명되었다.⁸³⁾ 홍준옥은 어려서부터 사강리에서 한문을 배우고, 1911년 11월 14일 경기헌병대 보조원이 되었다. 1914년 3월 30일에 만기되어 1916년 2월경 파주군 임진면 서기가 되었다. 그리고 1918년 1월 30일 의원 면직되어 동년 2월 4일 수원군 송산면 서기가 되었다.⁸⁴⁾

셋째, 학력을 보면 특히 중심인물인 홍면옥이 한문을 2~3년 정도 공부한 인물임이 주목된다. 그 외에 인물들은 한문을 좀 공부했거나 한글을 해독할 수 있거나 문맹인 경우이다. 이들의 한문 공부는 주로 서당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서당은 항일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제국관리를 지낸 李正根은 수원군내 장안면 등 7개 면에 서당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서당에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한편 동지들을 규합해 나가면서 일제식민통치는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유포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서당은 무단통치하에서는 반일운동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⁸⁵⁾

1991, 895~896쪽) 이들의 묘소는 모두 현재 송산면사무소 뒤 매봉산 약수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송산종합고등학교 이종길 선생님의 안내로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는 홍남후 집안 10대조인 洪慶臣 등 집안 어른의 묘소가 함께 있었다.

80) 남양홍씨세보 권지2 참조

81) 『남양홍씨세보』 권지2, 681~683쪽. 왕광연의 큰 며느리인 이남순의 증언. 왕광연은 홍면옥의 고모부였다고 한다.

82) 왕광연의 큰 며느리인 이남순의 증언.

83) 21권, 229쪽

84) 21권, 226쪽

85) 강진갑, 「경기도 1910년대 운동과 3.1운동」, 『경기도 역사와 문화』, 347쪽, 『수원근현대사 증언 자

면서기인 홍준옥과 문상익은 신식공부를 하였다. 문상익은 5년간 한문을 배우고 난후 남양의 사립학교인 普興학교에서 반년-1년간 배웠다⁸⁶⁾ 그가 다닌 사립 보흥학교는 1901년 미국인 조원시의 기부금, 매달 6원을 기금으로 삼아 설립된 학교였다. 그 후 학생들이 늘고 교세가 확장되자 경향 각지의 인사들의 기부금으로 유지되었다.⁸⁷⁾ 특히 보흥학교는 기독교학교로 “폭도를 양성하는 학교”로 불리워질 정도로 반일적인 학교였다.⁸⁸⁾ 다음에 그는 남양 공립보통학교 야학을 두달 동안 다녔다.⁸⁹⁾ 이 학교는 1898년 10월 1일에 당시 남양군 陰德面 南陽里에 있던 원 南陽都護府 執事廳을 차입하여 남양공립소학교를 개교하였으니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이후 신학제에 의한 이 지역 교육기관의 효시였다. 현 남양초등학교의 전신인 남양공립소학교의 설립 당시 교원은 朴齋賢 1인이며 아동수는 35명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이후 1906년 8월 27일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교육은 변질되었다. 종래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도 종래의 5-6년을 4년으로 단축하였다. 교과목은 종전과 차이가 없었으나 일본어를 전학년에 걸쳐 매주 6시간 부과하는 등 한국교육을 식민지교육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화성군의 남양공립소학교도 <<보통학교령>>에 의하여 1906년 공립 남양보통학교로 개칭되기에 이르렀다.⁹⁰⁾ 1908년에는 2학급으로 편성되어 초대교장에 남양군수 金寬鉉이 임명되었다. 1911년 11월 4일 <<조선교육령>>의 실시에 따라 남양공립보통학교 개칭되었다.⁹¹⁾ 한편 문상익은 한문과 일본어를 해득할 수 있었다.⁹²⁾

홍준옥은 남양의 사립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고 서울로 올라가 야학교를 다녔다.⁹³⁾ 한문을 10년 간 공부하고 남양보통사립학교를 졸업하였으며,⁹⁴⁾ 한문 및 일

료집』이정근의 손자 이신재 면담기, 301쪽

86) 21권, 276쪽

87) 李梯宰, 남양군의 사회와 교육 위의 책 81쪽

88) 『남양관계서류』 규장각소장. 보흥학교 부교장을 역임한 이창희는 1919년 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4개월에 처해졌으며, 1924년에는 공산당 선전관계로 징역 3년에 처해졌다고 한다(조성운 학형 교시)

89) 21권, 276쪽. 22권, 102쪽

90) 『화성군사』, 621~622쪽

91) 남양초등학교 백년사편찬위원회, 『남양백년사 1898~1998』, 남양초등학교 (1998), 135~136쪽

92) 22권, 45쪽

본어에 능통하였다.⁹⁵⁾

넷째, 종교의 경우를 보면 김명제가 기독교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교를 신앙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이점은 우정면, 장안면, 향남면의 경우가 주로 기독교 천도교인들이 많이 참여한 것과 비교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기독교의 경우 1902년 3월에 남양읍, 양철리, 용머리, 경다리, 포막, 덕방리, 영흥도, 대부도, 선감도 등 아홉 교회들로 “남양계삭회”(구역회)가 조직되어 있었던 것이다.⁹⁶⁾ 또한 만세운동의 중심지인 송산면 사강 경다리(현재 사강 2리)에 1911년 남양교회 지교회로 초가 목조 4칸 예배당이 건축되었던 것이다⁹⁷⁾ 또한 용포리에는 1906년에 감리교 당산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⁹⁸⁾ 특히 경다리의 경우 현재 송산중학교 근처가 일제에 의하여 가장 많이 탄압받고 많은 집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천도교의 경우도 동학이 1880년경부터 전해지기 시작하여⁹⁹⁾ 1909년 8월에는 남양교구의 경우 전국에서 성미남부성적이 우수하여 1등에 선정되고 있다 또한 1913년에 수원대교구는 수원군교구, 진위군교구, 시흥군교구, 부천군교구, 인천군교구, 강화군교구, 용인군교구, 안성군교구, 평주군교구, 남양교구 등을 관할할 정도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⁰⁰⁾

다섯째, 참여자의 생활정도를 보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극빈계층, 곤란계층, 보통 풍요로운 자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극빈이거나 생활곤란자가 풍요로운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경현, 홍남후, 이경집, 홍태근, 홍관후 등 어느

93) 21권, 275 쪽

94) 21권, 90 쪽

95) 22권, 44 쪽

96)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1997), 41 쪽
사강교회95년사편찬위원회, 『사강교회 95년사』, 사강교회 (1997), 53-56 쪽

97) 『사강교회 95년사』, 70 쪽

98) 『송산면 지명조사표』(송산면 면사무소 소장)

99)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경기사론』, 4, 경기대학교 사학회 (2001), 183-184 쪽

100)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원 (2001), 109-115 쪽

정도 여유 있는 계층들도 참여하고 있음은 주목된다고 하겠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생활 정도와 빈부정도를 구체적으로 표로 작성하면 <별첨 표 3> 및 <별첨 표 4>와 같다

일곱째, 참여계층의 주소지를 보면 대부분이 사강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들이며,¹⁰¹⁾ 홍남후, 홍관후 형제 등이 삼존리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다만 전도선은 잡화행상으로 1년전부터 사강에 살고 있다. 출신지 및 본적은 전남 興陽郡 東陽이다.¹⁰²⁾ 김명제는 마도면 해문리 출생이며,¹⁰³⁾ 차경현은 시흥군 노량진 출신이고¹⁰⁴⁾ 김교창은 강화도 선원면 창리 출신이다.¹⁰⁵⁾ 이순일은 수산면 삼준리출생이며,¹⁰⁶⁾ 김도정은 음덕면(현재 남양동) 온석리출생이다.¹⁰⁷⁾ 김성실은 마도면 해천리출생이며,¹⁰⁸⁾ 최춘보는 안성군에서 출생하였다.¹⁰⁹⁾ 그리고 민용운은 경성부 청파에서,¹¹⁰⁾ 황철성은 본적은 인천부 외리이나 송산면 고포리에서,¹¹¹⁾ 이윤식은 수원면 남창리에서 태어났다.¹¹²⁾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볼 때 사강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송산면 지역의 만세운동은 연령별로는 10~50대, 학력은 전통 교육 또는 문맹자가 종교는 무교 직업별로는 농민들이, 재산정도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만세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심인물인 홍면옥 형제는 조선후기 무과 집안 출신으로 사강지역에서는 중심적인 집안이라는점이다. 아울러 중심인물로 참여한 김명제

101) 사강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강 2리(정도리)에 살고 있었다. 홍면옥과 홍준옥, 왕광연 등은 아랫 정도리에 살고 있었으며 그 집도 역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아랫 정도리에는 홍씨와 문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2002년 11월 23일 왕광연의 며느리인 이남순과 왕광연의 손자인 왕의명(1941년생), 왕의항(1948년생)의 증언)

102) 22권, 67쪽, 212쪽.

103) 21권, 219쪽

104) 21권, 279쪽

105) 21권, 38쪽

106) 21권, 241쪽

107) 22권, 10쪽

108) 22권, 11쪽

109) 22권, 12쪽

110) 22권, 5쪽

111) 22권, 154쪽

112) 22권, 63쪽, 164쪽.

는 홍면옥의 장인이며, 왕광연은 그의 고모부라는 점, 홍면옥은 남양홍씨 참의공파 중 향렬이 높은 인물이라는 점 등이 주목된다.

V. 일제의 대응과 탄압

노구찌 순사부장이 피살된 후 홍면옥은 장인 김명제, 동생 홍준옥 등과 함께 인력거를 타고 치료차 남양방면으로 향하다 사강리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원경찰서 순사들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원경찰서에서 온 순사부장 兼太郎과 순사 尾澤龜太郎 등이었고 결국 이들에 의해 체포되게 되었다. 그 결과 임팔용외 5, 6인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심문 결과 결국 홍면옥 외 28명이 체포되었다.¹¹³⁾ 그러나 수사결과 일제는 중심인물인 홍효선, 전도선, 이태순, 이석춘, 오경운, 예종구 등 27명이 체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4월 20일 사강 주재소에 이들의 체포를 지시하였다.¹¹⁴⁾ 그리하여 5월 9일 경 집으로 돌아온 전도선, 안순원, 오경운, 이윤식, 김병준, 정군필 등을 체포하였다.¹¹⁵⁾ 그러나 중심인물인 홍효선, 예종구, 이규선 등 다수의 인물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일제는 더욱 만세운동에 참요한 인사들의 체포에 열을 올렸으며, 또한 보복을 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경은 4월 9일 律村 헌병 특무조장 아래 하사 이하 6명과 경찰관 4명이 古屋 수원 경찰서장 이하 7명과 보병 15명의 협력을 얻어 3개 반을 편성하여 오산 화수리 반도 및 사강 반도로 검거활동을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강리를 중심으로 한 그 부근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의 부락 20개 리에서 주동자 이하 175명을 검거하고 증거품 여러 점을 압수하였다.¹¹⁶⁾

113) 22권, 224~225쪽.

114) 21권, 264~265쪽.

115) 22권, 58~67쪽.

116) 姜德相編, 『現代史資料』 26, みすず 書房 (1976), 310~311쪽 불탄 부락은 송산면 고포리, 마산리(마산 2리), 관현동(갓마루, 마산 1리), 장문동(장문, 마산 1리), 양지촌 사강 3리, 대정동 쌍정 2리), 용포리, 문산동(삼촌 1리), 봉가리, 삼촌리, 중송리, 옥일리, 옥교동, 일이리, 사강리, 칠곡리, 서신면 궁평리, 대안동(상안 2리), 전곡리, 사곳리, 상안리, 지곡리, 전곡리, 마도면의 해문리

특히 이들은 닥치는 대로 철폐 구금하고 민가에 방화하기 시작하였다. 붙잡혀간 사람들은 모조리 “세탁봉 또는 장작으로 머리 또는 허리를 힘껏 구타”당하였다. 헌병과 경찰은 서로 떨어져 있는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방화하였는데, 사강리를 비롯하여 鳳歌 三尊 六一 馬山 中松 등 6개 동리 총호수 525호에서 200여 호를 소각하였다. 가장 심하였던 곳은 사강리와 봉가리였다. 사강리에서는 131호 가운데 81(2)호가 불타 없어졌고¹¹⁷⁾, 봉가리에서는 57호 중 47호가 불탔다. 일본 헌병과 경찰은 성냥을 다 써버려 짚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고 한다. 또한 4월 16일 일본 헌병은 다시 송산면에 출동하여 주모자 집을 다 소각하지 못하였다는 구실로 나머지 집에 방화하였다고 한다.¹¹⁸⁾

한편 1919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소실된 호수, 사망자, 부상자 등을 일본측 통계를 통하여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의 경우 소실호수가 211호, 사망자 2, 부상자 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⁹⁾ 이 가운데 사강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표 4> 주소 항목에서 보듯이 중심인물이 그 지역에 많았기 때문이었다. 사강리는 송산면의 중심지역으로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있던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수원군내 전체 피해상황은 소실호수 328, 사망 45, 부상 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⁰⁾ 그리고 주민들이 검거된 주요 마을은 송산면의 사강, 양지(현재 사강 3리), 마산, 관현(마산 1리), 장문(마산 1리) 육일, 육교, 이일(육일 1리, 2리), 봉가, 문산(삼존 1리), 삼존, 중송 등과 마도면의 백곡, 소곡(금당 1리), 해문, 중간(해문 2리), 서신면의 칠곡, 지곡, 전곡, 상인 등으로 이들 마을에서 175명이 검거되었다.¹²¹⁾

(해문1리), 중간리(해문 2리), 금당리(금당 2리), 소곡리(금당 1리), 백곡리(백곡 2리), 두곡리, 남양의 신남리 등이다.

117)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산중학교 근처에서 많은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수 희생되었다고 한다.

118) 「수원군 송산면 지방에 있어서의 소요사건 복명서」, 1919년 4월 25일 참조,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320쪽 재인용.

119) 1919년 4월 23일 보고(강덕상 책, 312쪽)에 따르면, 총 소실호수는 187호로 기록되고 있다. 서신면의 경우는 같고, 사강리 82호, 육일리 14호, 봉가리 47호, 삼존리 33호, 중송리, 마산리는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20) 『현대사자료』 26, 318쪽

<표 3> 남양반도지방 검거 및 손해상황

검거지방	검거로 인한 손해		
	소실호수	사망	부상
송산면 사강리	81		4
마산리	1		1
육일리	30		
봉가리	47	1	1
삼존리	40		
중송리	1		
마도면 해문리	7		2
서신면 전곡리	2	1	
상안리	2		
합계	211	2	8

*강덕상, 『현대사자료』26, 318 쪽에 근거하였음

일제의 검거반이 3차에 걸쳐 활동하는 동안 인명피해와 더불어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다. 122) 그 가운데 燒失호수가 392호요, 이재민이 16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당한 지방의 생존자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서 여러 의사와 간호부들을 파견하여 치료하고 추수 때까지 매일 한 사람에게 3홉씩 쌀을 배부하였다. 그리고 부서진 집들에 대해서는 임시가옥을 건축하도록 하였고, 농기구를 주었으며, 새롭게 가옥을 건축하는 이에게는 매 건축물에 50원을 보조하였다. 123) 이러한 일제의 정책은 민심수습과 세계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곡리에 살고 있던 한인부호 홍헌은 부락민들의 재난을 안타깝게 여기고 집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기도 하였다. 124)

한편 이재민들은 집과 더불어 종자까지도 모두 불탔기 때문에 종자를 대여해

121) 『현대사자료』 26, 312쪽

122) 남양지역의 16개 마을의 피해상황은 노블 선교사기록 4월 16일, 4월 19일자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일운동, 그날의 기록』(2001), 73~76쪽.

123) 『화성군사』, 169쪽

124) 南陽洪公諱憲之施恩不忘碑(화성시 서신면 전곡2리)소재 홍헌의 손자 홍완유와 2002년 10월 14일 송산면 사강 소재 홍의원에서 가진 면담.

주었는데 그 수량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일제의 이재민에 대한 배급 일람표

이름	이재민 호수	급여 인원	급여 수량	경작두락	평균 급여량	1두락 평균 급여량	비고
마도	7	3	1,600	63	530	254	이재민중 3호는 半燒 1호는 인출한 種物을 소지함
송산	200	155	63,150	2,384	400	264	이재민 중 商 18호, 무직2 호 불명 23호는 인출하여 소지함
서신	4	2	1,100	46	550	239	이재민 중 2호는 불명
팔탄	3	3	1,500	49	500	306	
향남	26	25	13,000	522	520	249	기독교회당 1호
장안	52	50	25,500	975	510	261	수촌리 기독교회당 1호 漁隱천도교회당 1호
우정	33	29	14,500	608	500	238	4호는 種物을 인출하여 소지함
합계	325	267	120,350	4,647	450	258	

<비고> 평균배부량: 평균 2 두락을 1 反步라 함

種糧배부표준: 10두락 이상은 5두락을 넘을 때마다 매번 1 두락을 더 주었다. 단 3두락 이하의 端數는 차지 않았음(예 11, 12, 13 두락은 10두락분을 주었으며, 14, 15두락 될 때에는 15두락 분, 즉 4斗를 주었음).

**강덕상, 『현대사자료』 26, 318 쪽에 근거하였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민가운데 송산면의 경우 200 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송산면이 타지역에 비하여 보다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사강 등지의 만세운동등 주도했던 인물들은 일제에 의해 강한 처벌을 받게되었다. 일제는 1919년 3월 29일 소요 및 살인 등 죄로 홍면옥, 김명제, 임팔용, 홍준옥, 문상익, 홍명선, 왕광연, 차경현, 진순익, 김교창, 홍남후, 노건우, 이순일, 김도정, 김성실, 최춘보, 박춘홍, 홍문선, 민용운, 이정집, 홍태근, 황철성, 홍복룡, 홍열후, 김성우, 홍관후, 김용준, 이성봉 등을 구속하였다.¹²⁵⁾ 그러나 중심인물로 그들이 수괴로 지목한 홍효선, 이태순, 이석춘, 오경운, 예종구 등은 5월 9일까지

125) 21권, 269쪽

체포하지 못하였다.¹²⁶⁾ 그리고 일제는 체포된 사람들에 대하여 혹독한 고문을 가하였다. 그들을 빨가벗기고 담금질을 하였으며, 잡아비틀고 입과 코에 냉수를 들어 부었으며, 주리를 틀기도 하였던 것이다.¹²⁷⁾

결국 1920년 5월 홍면옥, 홍준옥, 문상익, 왕광연은 각 징역 12년, 임팔용, 홍명선, 차경현, 김교창, 홍남후, 박군홍, 홍문선, 민용운, 황철성, 홍관후, 김용준, 전도선, 정군필은 징역 7년, 최춘보, 오광득, 이윤식, 안순원은 징역 6년을 판결받았다. 홍면옥 등 17명은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20년 7월 5일 모두 기각되었다.¹²⁸⁾

VI. 결어

지금까지 1919년 3월 송산면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송산면지역의 3·1운동의 특징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결어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송산면 지역의 3.1 운동은 오늘날 화성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리적 격리성 등으로 인하여 우정면, 장안면, 팔탄면, 향남면 등의 만세운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있었던 고종의 국장에 참여한 홍효선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일신보 등을 통하여 만세운동 사실을 알았던 홍면옥, 홍준옥, 문상익 등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중송리의 이규선, 마산리의 예종규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제에 의하여 형벌을 받았던 홍면옥은 더욱 적극적인 저항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홍면옥이 실제 이상으로 중심인물로서 주로 부각된 측면이 있다. 당시 체포되지 않은 홍효선, 예종규, 이규선 등의 인물에도 비중을 두어야 할듯하다.

셋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송산 사강지역을 중심으로 발발하였으나 그 인근

126) 21권, 264쪽

127) 동아일보 1920년 5월 15일자 <수원사건 공소공판>

128) 『독립운동사자료집』5, 387쪽

의 서신, 마도 등 여러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한 만세운동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제는 송산면뿐만 아니라 서신, 마도지역의 마을까지 불지르고 사람들을 검거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사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지식인과 특히 농민주도의 운동으로서 폭력성을 띤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순사부장의 처단은 그 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우정면 화수리에서도 주재소 전소 및 일본 순사의 처단이 있었다.

다섯째, 우정면 장안면 등과 같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송산면은 마산포 등 중요한 항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송산, 서신, 마도 등 여러 지역이 바다와 접해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송산지역의 경우 인천, 안산 등지보다는 수원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탄압 역시 남양주재소, 수원경찰서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는 부농, 중농, 자작 및 소작농 등 다양한 계층이, 연령별로는 10대부터 50대까지, 학력으로는 한문, 신학문, 문맹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만세운동이라도 할 수 있다. 즉 송산 일대의 전 주민이 참여한 만세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에서는 종교적인 특색을 크게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우정, 장안 등지가 기독교, 천도교 등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송산지역은 기독교, 천도교의 전도와 포교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하여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이 일부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서신지역과의 관계, 우정, 장안, 향남면과의 연계관계는 보다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별첨 표 1> 수원군 면별 경지면적표(1922.12월조사)

면 명	논			밭	합계	자작, 소작별 면적			
	1모작	2모작	계			자작		소작	
						논	밭	논	밭
수원면	336(ㄹ)	0	336(ㄹ)	410(ㄹ)	746(ㄹ)	133(ㄹ)	156	204	254
일형면	10,378	147	10,525	8019	18544	1707	3991	8818	4028
의왕면	5,814	0	5,814	6179	12003	1321	2757	4503	3422
반월면	14,678	0	14,678	10437	25115	2622	2686	12056	7751
매송면	8,939	0	8,939	4585	13524	2950	1505	5989	3080
봉담면	8,274	0	8,274	4683	12957	2158	2092	6116	2591
비봉면	8,382	0	8,382	5142	13524	1585	1554	6797	3588
음덕면	10,976	0	10,976	7389	18365	1690	3931	9286	3458
마도면	6,893	0	6,893	4456	11349	2280	2782	4613	1674
송산면	11,214	0	11,214	7815	19029	2855	2480	8359	5335
서신면	7,963	0	7,963	5794	13757	3055	2350	4908	3444
팔탄면	9,319	0	9,319	6405	15724	3130	2296	6189	4109
장안면	10,559	0	10,559	5,471	16030	3509	2028	7050	3443
우정면	13,041	0	13,041	8,447	21488	3720	3073	9321	5374
향남면	11,135	0	11,135	7,019	18154	4261	3022	6874	3997
양감면	8,134	0	8,134	5,682	13816	3422	3080	4712	2602
정남면	11,051	0	11,051	8,849	19900	4731	3663	6320	5186
성호면	12,025	0	12,025	7,443	19468	3708	2002	8317	5441
동탄면	9,496	0	9,496	7,328	16824	2790	3380	6706	3948
태장면	13,474	0	13,474	9,278	22752	2934	2455	10540	6822
안용면	14,159	150	14,309	6,923	21232	3632	2755	10677	4168
합계	206,150	297	206,547	137,754	344301	58192	54038	148355	83716

*단위는 町步(結)-上品 3,000평, 下品 1만 2천평. 1段步는 1마지임 지역에 따라 150-300 평

*酒井政之助 『水原』(1923), 24~25 쪽에 근거하였음

<별첨 표 2> 수원군 내 면별 농업자수 일람표(1922.12)

면명	전업 겸업 각 농가호수			지주, 자작, 자작겸 소작, 소작 각농가호수					
	전업	겸업	계	지주(갑)	지주(을)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	계
수원면	180	153	333	135	12	38	25	123	333
일형면	1043	89	1,132	55	57	134	365	521	1132
의왕면	706	40	746	8	23	25	174	516	746
반월면	1257	97	1,354	4	14	98	873	365	1354
매송면	818	45	863	6	22	35	295	505	863
봉담면	776	44	820	0	35	69	201	555	820
비봉면	878	68	946	5	35	50	310	646	946
음덕면	999	357	1,356	38	54	75	369	820	1356
마도면	697	253	950	0	41	102	395	412	950
송산면	1050	393	1,443	10	37	136	703	557	1443
서신면	800	207	1,007	0	24	45	240	698	1007
팔탄면	1068	84	1,152	4	16	87	456	589	1152
장안면	715	273	988	0	18	59	418	493	988
우정면	1064	329	1,393	0	29	86	580	698	1393
향남면	922	256	1,178	0	30	98	448	502	1178
양감면	766	34	800	6	27	53	399	315	800
정남면	1203	64	1,267	1	36	109	495	626	1267
성호면	774	282	1,056	0	30	86	405	535	1056
동탄면	1074	85	1,159	8	50	89	412	600	1159
태장면	1168	156	1,324	4	22	107	432	759	1324
안용면	1086	288	1,374	4	39	147	360	824	1374
합계	19044	3537	22,581	288	651	1728	8255	11659	22581

* 지주 갑, 을의 경우 면적차이, 不在지주, 在地지주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나눌 수 있음

* 酒井政之助, 『水原』(1923), 26~27 쪽에 근거하였음

<별첨 표 3> 만세운동 주요 인물 생활정도 일람표

성명	생활정도	내역
차경현	여유	음식점 영업을이
홍남후	유복	논 28두락
이경집	풍부	논 20두락 자작, 밭 반날같이(半日耕) 소작
홍태근	풍부	논 20두락, 밭 하루같이(一日耕)
홍관후	풍부	논 20두락, 밭 반날같이
김도정	보통	논 10두락 밭 하루같이, 타인 논 20두락 소작
홍승한	보통	논 15두락, 밭 하루같이 소작
정군필	보통	생활에는 곤란이 없다.
임팔용	곤란	동내소유 논 4두락, 타인의 밭 1 경소작 마을심부름담당
김명제	곤란	타인의 논 12두락, 밭 하루같이 소작
홍면옥	곤란보통	타인의 논 15두락 소작, 논 5두락 밭 반날 소작
이윤식	곤란	논 12두락 밭 하루같이 소작, 음식점 경영
문상익	약간 곤란	논 30두락, 밭 하루같이 소작, 월급 12 원
홍명선	곤란	논 18두락, 밭 하루같이 소작
김성실	곤란	논 6두락, 밭 하루같이 소작
최준보	곤란	밭 하루같이 소작
박춘흥	곤란	논 9두락, 밭 반날같이 소작
홍준옥	곤란	자기 논 9두락, 밭 3일 경작지 월급 12원
황철성	곤란	잡화소매상 경영
오광득	곤란	밭 하루같이 소작, 음식점 경영
왕광연	극빈	밭 반나절같이 소작
김교창	극빈	밭 반나절같이 소작, 음식점
홍문선	극빈	논 10두락, 밭 반나절같이 소작
민용운	극빈	논 3두락, 밭 반나절같이 소작 고용살이
김용준	극빈	논 10두락, 밭 반나절같이 소작
전도선	극빈	잡화행상

* 생산량 단위: 結 負, 씨앗뿌리는 단위: 두락(마지기, 단보) 노동수단: 소가 일하는 양, 耕

* 본 표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1-22 권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

<별첨 표 4> 만세운동 주요 인물 재산 총액 및 내역 일람표

성명	재산총액	내역
홍남후	3,900(원)	초가20간(400원) 논28두락(300원) 산림3천평 동산100원
홍준옥	2,500	초가11간(300), 논, 밭, 산림, 동산
홍면옥		초가 9간 밭 2일경, 동산 3-40
홍태근	2,500	초가 20간(150), 논 및 밭(2,100), 동산25
홍관후	2,500	초가 13간(200), 논 및 밭(2,100), 동산100
정군필	1,300	답 8두락(800), 밭 하루반갈이(500원내외)
문상익	1,100	초가 14간(400), 동산 700
이경집	1,190	초가 10간(90원), 논 및 밭(1,000), 동산100
최춘보	250	초가 6간(150), 동산 약100
이윤식	250	초가16간(250), 논 12두락, 밭 하루갈이 소작 음식점
홍복용	240	초가 9간(70), 밭 하루갈이((100) 동산 70
차경현	200	초가 6간(100), 동산100
홍승한	200	초가 11간(100), 기타 동, 부동산 합이100
홍문신	160	초가 9간(90), 동산70
오광득	160	초가 8간(160), 밭 하루갈이 소작, 음식점
김용준	140	초가 6간(70), 동산70
박춘홍	130	초가 6간(80), 동산50
김명제	120	초가 7간(70), 동산50
임팔용	70	초가 4간(40), 동산30
전도선	70	잡화행상 자금 70
왕광연	40	초가 6간(40)
민용운	35	초가 4간(25) 동산 10
황철성		자산 및 재물 없음

*본 표는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1-22 권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서울: 국가보훈처, 1983.
-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서울: 왕도출판사, 1981.
-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서울: 미래출판사, 1983.
-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화성: 화성군, 1990.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1, 1995.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2, 1995.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 사강교회95년사편찬위원회, 『사강교회 95년사』, 경기: 사강교회, 1997.
-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일운동, 그날의 기록』, 2001.
- 酒井政之助, 『水原』, 1923.
- 매일신보 1919년 4월 23일자 <수원이재민의 참상>
- 동아일보 1920년 5월 15일자 <수원사건 공소공판>
- 이정은,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9, 천안: 독립기념관, 1995.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특집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7, 1997.
- 정병욱, 「일제의 식민정책과 경기도」, 『경기도 역사와 문화』, 수원: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4, 수원: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주요어

홍면옥, 송산면, 3.1운동, 노구찌, 사강

면 답 자

- 기봉서(화성시 송산면 삼촌리 화성문화원장)
 김길선(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송산면장)
 김삼순(화성시 송산면 민용운의 자부)
 김옥분(화성시 송산면 육도리, 홍면(부인 엄일녀)의 처남 부인, 1930년생)
 백응춘(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송상면 총무계장)
 이남순(화성시 송산면 사강 1리, 왕광연의 자부, 1919년생)
 정주화(화성시 송산면 사강 3리, 정군필 손자)
 최철희(화성시 송산면 칠곡리, 1934년생)
 왕의명(서울, 왕광연의 손자, 1941년생)
 왕의항(화성시 송산면 사강 1리, 왕광연의 손자,)
 홍광유(화성시 송산면 사강 3리, 홍면의 손자)
 홍광유(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홍열후의 3남)
 홍사민(전 송산면장)
 홍사억(화성시 송산면 쌍정 1리, 95세)
 홍사웅(화성시 송산면 삼촌리, 홍남후의 손자)
 홍완유(화성시 송산면 홍의읍, 홍현의 손자)
 홍진후(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홍면의 아들)